

# SBS 매거진 2

2000



SBS 2000년 연중 캠페인

이제는 **생명**이다

TV Ch 6 / POWER FM 107.7MHz / 표준 FM103.5 MHz / <http://www.sbs.co.kr>

# CONTENTS 2



**표지설명**

항상 차분하고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두 진행자 한선교, 장은아.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가 옆자리에 있 기만해도 방송준비가 끝난 셈이라고 한다. 언제나 편안한 두 사람이 있 기에 우리의 아침은 행복해진다. **사진/조광희**

- 04 **특별 기획 / 「불꽃」**  
불꽃으로 떠오르는 참사랑의 가치 · 이승헌
- 10 **일일 아침 드라마 / 「착한 남자」**  
두 여인을 통해 본 진솔한 가족 풍경 · 김진희
- 14 **설날 특집 드라마 / 「백정의 딸」**  
가슴 저리고 뿌듯한 사랑, 그 이름 '가족'
- 16 **스튜디오 큐 /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열과 성의로 쌓아온 신뢰의 5년 · 김보경
- 20 **새 얼굴 / 최희준 앵커**  
시청자를 우선하는 강단있는 노력 · 최선호
- 22 **커버스토리 / 한선교, 정은아**  
행복을 전달하는 아침의 두 전령사 · 이병률
- 26 **프로그램 탐험 / 「코리아 GO!GO!GO!」**  
우리 손으로 그려내는 한국인의 자화상 · 유석현
- 28 **화제의 코너 / '청기백기홍록기'**  
N세대의 인기를 싹쓸이 한다 · 한경진
- 30 **「생명의 기적」 방송, 그 후**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의 메시지 · 박정훈
- 32 **스포츠라이트 / 「왕릉의 대지」 개성과 여성 연기자 6인**  
깊이 있는 연기로 드라마를 빛낸다 · 김은정
- 36 **SBS 한국스포츠TV 인수**
- 38 **방송가 사람들 / SBS 아트텍 아트2팀 한영권**  
고독과 근성으로 일군 3차원 세계 · 이언영
- 42 **라디오 세상 / 표준 FM**  
「새 천년 명의에게 듣는다」 · 이정은
- 44 **라디오 세상 / FM**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 · 김광태
- 46 **TV 및 라디오 편성표**
- 50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51 **이제는 생명이다 · 이창재**



**SBS 매거진**

**SBS 매거진 2000년 2월호**

- 동권 제99호 2000년 2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라-5316
- 발행 · 편집인 / 송도균 주간 / 박준영 부주간 / 이근용 기획 / 남지혜  
사진 / 서창식, 조광희, 김연식 • 발행처 / (주)SBS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369-1114 • 편집 · 디자인 /  
비 group, 전화 382-3828 • 스캔 및 출력 / (주)스타트, 전화 2264-2050
- 인쇄인 / 이건호 인쇄 / (주)영은문화사, 전화 2274-9250
-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주)SBS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sbs.co.kr>입니다.



# 불꽃으로 타오르는 참사랑의 가치

특별 기획 | 「불꽃」

기획/이종수, 극본/김수현, 연출/정율영, 제작/삼화프로덕션  
2월 2일부터 수, 목요일 밤 9시 50분 방송





**천**년의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메인 테마는 크게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이유도 없다. 형식이야 어떻든 어차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내는 것이 드라마라면 말 그대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없고서야 그 소재, 즉 우리의 일상엔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구호는 드라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공허한 ‘선언적 의미’ 일 뿐이다.

SBS가 2월 2일 첫 방송하는 32부작 「불꽃」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지난 천년의 드라마 작법(作法)에서 과도하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깊은 사랑의 목시록’이란 제작 지침이 암시하듯 불꽃처럼 삼시간에 타오르고 또 사그라지는 남녀의 사랑이 주 소재이기 때문이다.

「불꽃」은 이미 임자가 정해진 두 남녀가 일순간의 만남으로 격정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들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다룬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면면을 보면 어설픈 사랑타령이나 젊은이들의 ‘럭비공 같은’ 사랑 놀음을 그린 여느 드라마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김수현(작), 정을영(연출) 라인이 이끄는 제작진을 보자. 지난해 초 「청춘의 덫」을 통해 남녀 관계를 ‘현미경으로 싹뿍 줄 들여다보듯’ 짚어내면서 역량을 재 입증한 김수현은 이번에도 이 지극히 평범하고 통속적인 소재를 그만의 ‘연금술’로 다듬어 낼 태세다.



일찍이 KBS 「목욕탕집 사람들」로 김수현과의 찰떡궁합을 과시했던 정을영 프로듀서도 특유의 감각적인 그림을 그려냈다.

「불꽃」은 그 내용상 많은 수의 연기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거꾸로 말해 주연급 연기자의 캐스팅과 극 중 캐릭터 설정이 무엇보다 드라마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연기자 고르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 작가와 연출가가 뽑은 주연급 연기자의 면면을 극 중 인물과 연결해 보는 것은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관전법 중 하나다.

### 불꽃같은 캐릭터, 연기 변신의 기승대

우선 운명적인 사랑을 그려갈 두 주인공은 텔런트 이영애와 이경영이 맡았다. 이들은 98년 SBS 「로맨스」 이후 두 번째 협연(協演)이다.

서른 한 살의 방송작가 김지현 역을 맡은 이영애는 마치 화주(火酒)와도 같은 캐릭터를 소화해야 한다. 차디 찬 독주 위에 파리하게 솟아오른 불꽃과 같은, 순수하면서도 뜨거운 성격의 소유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크립터로 방송사에 들어와 드라마 작가로의 변신을 꿈꾸지만 아직 절반 두드러지는 '작품'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드라마의 작가인 김수현처럼 히트 작품을 써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어설픈 타협은 원치 않는 인물이다.

그러던 중 취재하면서 알게 된 재벌 2세 최중혁(차인표 분)의 일방적인 구애를 받고 약혼 직전인 상황에서 일상의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서른 다섯 살의 성형외과 의사인 이강욱(이경영 분)을 만나宿命적인 사랑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난관의 시작이다. "작가 활동이 힘들면 당신 원고를 드라마로 만들어 내보낼 전용 방송국을 지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중혁이 가만있을 리 없다. 중혁

「불꽃」은 제목이 암시하듯 불꽃처럼 삽시간에 타오르고 또 사그라지는 남녀의 사랑이 주 소재이다. 「불꽃」은 이미 입자가 정해진 두 남녀가 일순간의 만남으로 격정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들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다룬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면면을 보면 어설픈 사랑타령이나 젊은이들의 사랑 놀음을 그린 어느 드라마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의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정략적으로 동생을 종혁과 맺어주려는 오빠 지태(송영창 분)는 더욱 펄쩍 뛰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바라는 부모님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10년의 연기 경력 동안 즐곳 모나지 않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연기해왔던 이영애에게 이번 드라마는 그간의 이미지를 뒤엎고 중견 연기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가릴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로맨스」에서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쿨대 높은 노치녀 커리어우먼으로 열연한 이영애는 여자 연기자라면 누구나 욕심 낼 만한 김수현 원작의 여자 주인공을 그냥 넘길 리 없다. "이전의 이미지를 머리 속에서 소독하듯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이영애의 각오다.

이영애와 호흡을 맞출 이강욱 역의 이경영도 이미지 변신 면에서는 그녀와 비슷한 입장이다. 그 동안 인심 좋고 넉넉한 이미지의 중년을 연기했던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순간의 사랑에 자신의 운명을 '급회전' 할 흔들리는 중년상을 그리게 된다. 물론 기존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학 동료이자 약혼 직전의 관계인 민경(조민수 분)으로부터 '거절결핍증 환자' 라고 불릴 정도다.

탄탄한 연기력에도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순수 멜로물의 주인공을 따내지 못했던 이경영은 '연기력 좋은 텔런트'에서 명실상부한 스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거머쥐었다. 항상 침착하거나 정의로운 캐릭터에서 비롯되는 울골은 대사만을 소화하던 이경영은 김수현 특유의 약간은 나사가 풀린 듯한 '언어의 유희' 를 해내야 한다.

이들 두 주인공의 곁에서 사랑의 좌절을 겪는 또 다른 '불꽃' 같은 캐릭터는 차인표와 조민수가 맡게 됐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이야기 구도에서 비슷한 역할을 선보였던 조민수는 그렇다치더라도 MBC에서만 주로 활동해 온 차인표의 캐스팅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올 듯하다.



일찍이 MBC 「사랑을 그대 품안에」, 「별은 내 가슴에」 등을 통해 길만 번지르르한 '도회적 부르주아' 의 이미지를 각인 시켰던 차인표는 사실 실제와는 달리 번듯한 외모만이 드라마 속 이미지에 투영되는 것에 절망에 가까운 심정을 느껴





운명적인 사랑을 그려갈 두 주인공은 이영애와 이경영이 맡았다. 이들은 98년 SBS 「로맨스」 이후 두 번째 호흡을 맞춘다. 이들 두 주인공의 곁에서 사랑의 좌절을 겪는 또다른 '불꽃' 같은 캐릭터는 차인표와 조민수가 맡게 됐다. 특히 SBS에서는 첫 선을 보인 차인표의 캐스팅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왔다. “대학 졸업하고 미국 뉴욕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던 젊은 시절이 내 본 모습”이었던 차인표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후 출연작도 줄곧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차인표는 98년 MBC 주말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와 지난해 「왕초」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내면 연기의 가능성을 비쳤다. 그런 차인표가 이번에 맡게 된 종혁이라는 캐릭터는 겉은 '부르주아' 면서도 내면은 걱정에 휩싸이는, 이제껏 차인표가 걸어 온 연기 경력을 한데 쏟아 부은 듯한 이미지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싫어 따로 회사를 차릴 정도로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하던 그는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현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난생 처음 절망을 겪게 되는 인물의 심리를 묘사해야 한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디션(대사 전달력)이 여전한 걸림돌이지만 '친정'인 MBC에서도 선뜻 SBS 출연을 '승낙'했을 만큼 이번 드라마를 통해 차인표의 확실한 변신과 일취월장을 지켜보는 것은 「불꽃」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다.

### 주인공을 에워싼 주변 인물들의 탄탄한 연기력

이 드라마의 장점 중 하나는 주연들을 에워싸고 있는 연기자들의 면면이 워낙 탄탄하다는 데서도 발견된다. 종혁의 부모로 나오는 아버지 역의 박근형과 어머니 역의 강부자는 오랫동안 쌓아 온 이미지의 전형을 풀어헤친다. 노년이면서도 여전히 역동적인 사업가로 나오는 박근형은 특유의 '성공한 인생'의 전형을 선보일 듯하고, 강부자는 이런 남편에 둘러 살면서도 아들을 감싸는 어머니의 정서에는 안정맞춤이다. 지현의 부모 역을 맡은 백일섭이나 정혜선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네 보편적인 노년을 보여주기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본 「불꽃」의 면면은 최근 물량 투입이나 볼거리 위주의 드라마가 결코 시청자의 내면을 깊숙이 울릴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SBS는 2년만에 드라마 해의 로케이션을 태국에서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기 보다는 연기자의 내면 연기에만 의존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상쇄하고 운명적인 사랑이 피어오르는 순간의 이국적 화면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할 것이다.

2000년 공중파 드라마로는 첫 본격 멜로물인 「불꽃」. 이미 시청자들에게 안겨질 '감정의 파문'은 예고되어 있다. <sup>SBS</sup>

글/ 이승현 · 동아일보 방송담당 기자, 사진/ 김연석



## 일일 아침 드라마 | 「착한 남자」

기획/공영화, 극본/최연지, 연출/김영섭  
2월 28일부터 월~토요일 아침 8시 30분 방송

# 두 여인을 통해 본 진솔한 가족 풍경

이 시대 여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좋은 남자, 착한 남자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있기는 있는가?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행복을 원하는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좋은 남자', 불행을 느끼는 여성들이 원망하는 '나쁜 남자'의 실체를 여자의  
시각이 아닌 남자의 시각에서 그들의 내면, 그들의 인간적 애환을 중심으로 그려낼  
드라마가 「착한 남자」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통해서 별로 다뤄지지 않았던 두 사위와  
장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 속에서 남편으로서의 남자, 사위로서의 남자, 아버지로서의  
남자, 장인으로서의 남자의 삶의 향기를 「착한 남자」를 통해 찬찬히 짚어보자.





**‘테** 크노와 ‘인터넷’이 일상의 키워드로 제시되는 새 천년. 이 첨단 사이버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기라도 하듯, SBS가 복고적인 제목의 드라마 한 편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이달 말에 방송 예정인 일일 아침 드라마 「착한 남자」가 바로 그것.

「착한 남자」라... 아니 도대체 ‘착함’이라는 구시대적 덕목(?)을 들먹이는 이 드라마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가 남다르다. 더구나 이 드라마를 「질투」, 「애인」 등 푹푹 튀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꾼 최연지 작가가 집필한다고 하니 궁금증이 더해진다.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상 속의 사건들**

「착한 남자」는 기존의 아침 드라마와 몇몇 측면에서 변별성을 지닌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아침 드라마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불륜과 고부갈등 따위의 찝찝한 이야기들이 없다. 대신 우리 이웃들의 밝고 따

뜻한 삶이 느긋하게 배어 있을 뿐.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김영섭 프로듀서의 제작 의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정직한 일상이 이 드라마의 소재이자 테마인 것이다.

드라마는 평생지기인 두 중년 여성의 가정을 축으로 전개된다. 10대 시절부터 소녀 가장으로 어렵게 자라왔지만 결국 방송사 성우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한 나안심(정재순 분), 그리고 뒤늦게 사회 생활에 뛰어드는 왕비병 환자 한여진(이효춘 분). 이들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바로 「착한 남자」가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면, 시댁 혹은 친정과의 갈등이나 자식들의 결혼 문제, 그리고 남편의 직장 문제 등 중년 여성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상사 속의 사건들이다. 간혹 과격도 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말썽을 부려본 적 없는 딸이 어머니의 초등학교 동창생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원기 왕성하던 남편이 갑자기 시한부 인생을 통보해 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역시 리얼리티가 살아있어 억지스럽지가 않다.

### 남자들의 삶이 그려지는 드라마

「착한 남자」는 또한 종래의 아침 드라마와 달리 남성들의 애환을 남성들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드라마이다. 아침 드라마의 주 시청자 층이 주부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파격인 셈. “현실에서 남자들의 역할과 위상이 변했듯이, 드라마에서도 남자의 역할과 위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위주의 아침 드라마가 아닌 남자가 제대로 보여지는 아침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김영섭 프로듀서의 의도대로, 이 드라마엔 다섯 명의 남성대표(?)가 투입되어 그들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융통성 없고 꼼꼼한 성격의 세무공무원 이춘식(심양홍 분). 안심의 남편인 그는 결혼 후 지금까지 장모(반효정 분)와 처제 낙심(유혜리 분)를 아무 불평 없이 부양하고 있지만, 자린고비란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은근히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다. 여진의 남편 김성호(이정길 분) 역시 아내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매한가지. 재벌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다 갑자기 전업남편으로 들어왔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진과 안심의 초등학교



「착한 남자」 만드는 김영섭 프로듀서

“삶의 진정성 담은 작품 만들고 파”



김영섭 프로듀서는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인류학을 전공했고,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지난해 아침 드라마 「지금은 사랑할 때」로 데뷔하기 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송지나의 취재파일 세 상속으로」 등의 교양 프로그램을 만든 적도 있다. 그래서일까? 그가 만드는 드라마에는

우리들 삶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가 듬뿍 담겨져 있다.

드라마는 인생의 거울이어야 한다고 믿는 그는,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역으로 드라마를 보고 인생을 반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늘 삶의 진정성이 담긴 드라마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더불어 일상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요. 지금은 착한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중이구요.” 그의 이런 마음가짐이 이번 드라마를 더욱 진실 되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교 동창생 박정훈(노주현 분)이 가세한다. 성별과 나이를 뛰어넘는 중년의 우정을 보여줄 그는 이 드라마를 흥미진진하게 엮어갈 연결고리와 같은 존재다. 덧붙여 여진의 동생으로 정훈의 딸과 사랑을 나누게 될 바람둥이 의사 우진(홍요섭 분)과 춘식의 사위가 될 경수가 젊은 남성들을 대표해 열연을 펼치게 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캐스팅은 낙심의 친구로 등장하는 귀순 무용가 신영희다. 그는 카페 주인으로 출연하면서 「착한 남자」를 통해 연기자로 변신할 예정이다.

가족은 어머니의 뱃속과도 같은 평온한 공간

핵가족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가족 해체' 까지 담론화 되고 있는 21세기. 구성원들의 고유 역할과 상호 관계가 바뀌면서 우리네 가족 풍경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착한 남자」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며 조심스럽게 이 시대의 올바른 가족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요즘처럼 가족이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가치관이 혼란스런 시대일수록 우선 가족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프로듀서의 이러한 믿음은 바로 드라마를 통해 육화된다.

「착한 남자」 속의 가정은 일상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가족들 모두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보루, 어머니의 뱃속과도 같은 평온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다. 모처럼 재미와 의미를 함께 갖춘 드라마를 만나 흐뭇한 기분이다. <sup>SBS</sup>

글/김진희 · 자유기고가, 사진/서창식

# 가슴 저리고 뿌듯한 사랑, 그 이름 '가족'

## 설날 특집 드라마 | 「백정의 딸」

기획/이종수, 극본/박정란, 연출/이현직  
2월 6일 밤 9시 40분부터 1, 2부 방송



1900년대 초, 서양의 문물이 들어와 사람들을 몹시도 혼란스럽게 만들던 때,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야 했던 박씨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다. 백정이라는 이유로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며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박씨에게 우연히 만난 서양 선교사는 구세주였다. 박씨는 그를 통해 인간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깨닫고 이들은 우리 나라 최초의 의대생으로, 딸은 이화학당 졸업식의 대표 학생으로 키워냈다.

새 천년 변화의 바람을 맞아 인간과 삶과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SBS는 실존 인물이었던 박씨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설날 특집으로 방송되는 드라마 「백정의 딸」이 바로 그것.

「자전거 도둑」 등을 통해 휴머니즘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던

이현직 프로듀서와 박정란 작가가 만나 「백정의 딸」을 통해 물질만능주의, 컴퓨터에 의해 지배될지도 모르는 '인간'이 얼마나 성스러운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또 아버지와 딸을 통한 가족간의 진한 사랑과 신분차별을 극복해 가는 딸의 개척자적인 도전 정신과 순수한 사랑도 강도 높게 그렸다.

연년(추상미 분)은 백정의 딸이다. 오랜 억압 속에서 살아왔고 백정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식들에게 냉혹하게 주지하는 아버지(이정길 분)와 포용력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이희향 분), 그리고 남동생 두석(정민 분)이 그의 가족이다.

어느 날 두석을 찾으러 운동회가 한창인 학교에 간 어머니는 구경꾼 중에 백정의 각시를 찾아 말처럼 타고 달리는 '백정각시 타고 달리기'라는 경기에 걸려 자식들 앞에서 수모를 당한다. 이 일로 어머니는 죽음



「백정의 딸」은 1900년대 초 세계 열강들의 혼돈 속에 휩싸였던 이 땅에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야 했던 박씨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이다. 박씨 가족은 불굴의 가족 사랑으로 신분차별을 극복하며 박씨의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대생으로, 딸은 이화학당 졸업식의 대표 학생으로 성장한다. 운명마저 개척해 나가는 박씨 일가의 모습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 줄 것이다.



을 택한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어머니의 꽃상여를 준비하려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기면서도 장지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언넨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분개의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가족을 등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언넨은, 자신이 윤호(유준상 분)를 좋아하는 대가로 아버지가 한 쪽 다리를 잃은 현실 앞에서 어머니의 죽음과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고 증오했던 마음을 허문다.

몇 년 후 언넨은 이화학전문학교 졸업식 답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 아버지는 백정입니다… 원망하고 증오했던 아버지를 지금은 존경합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백정의 딸」을 시대극이나 정형화된 ‘백정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드라마의 재미를 모두 맛볼 수 없다. “기존의 관념을 깨고 드라마 전개기법과 흐름을 현대적으로 다시 조명했다”는 이현직 프로듀서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극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현대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추상미, 이정길, 이휘향 등의 연기자들이 출연한 것만 보아도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이면서도 강한 역할을 해왔던 추상미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통해 그녀의 연기 변신을 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 100년 전 실존했던 인물, 박씨 이야기를 그린 「백정의 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SBS**

사진/조광희

# 열과 성의로 쌓아온 신뢰의 5년

스튜디오 큐 |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기획/장동욱, 연출/이충용, 남규홍, 강범석, 진행/유정현, 목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본** 격적인 성인 취향의 최신 연예정보를 가장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의도에서 심야 시간대에 생방송 제작을 표방한 「한밤의 TV연예」는 1995년 2월 9일 밤 11시에 첫 방송됐다. 연예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신뢰가 높은 아나운서 이계진과 희소성(참신성)과 연예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해 영화계 스타 심혜진을 진행자로 기용했다. 이계진은 베테랑 진행자답게 데뷔 처음으로 진행을 맡은 심혜진을 배려했고, 심혜진은 특유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며 이계진과 호흡을 맞춰 나갔다.

#### 특종과 특종을 위한 노력들

내용에 있어서는 그간의 코너 위주로 구성된 전형적인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정형화된 코너없이 아이템(내용)마다에 걸맞는 구성 형식을 선택했고, 연예 뉴스를 그대로 전하는 평면적인 보도 형식에서 벗어나 다각도의 입체 구성을 했다. 또 생방송의 장점을 십분 살려 연애가 현장에 중계차를 연결, 생생한 연예계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첫 회(당시 「모래시계」의 보디가드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정재의 군복무 모습 몰래카메라)부터 시작된 「한밤의 TV연예」만의 특종과 특종을 위한 노력들은 이 신설 프로그램을 시청자와 연예계에 단시간 내에 알리며 인기 프로그램으로 끌어올리는데 주효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3회부터 리포터로 발탁된 유정현 아나운서가 연예계의 굵직한 사건·사고 소식을 담당 취재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가요계 소식에는 남궁연, 해외스타 인터뷰는 재키림 등 다양한 연예 뉴스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취재하도록 리포터



성인 취향의 최신 연예정보를 가장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의도에서 심야 시간대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한밤의 TV연예」가 2월 10일 5주년 특집을 방송한다. 그동안 「한밤의 TV연예」는 자신만의 색깔과 진행으로 연예정보 프로그램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순수 오락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예계의 주요 사안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연예 저널리즘을 모토로 하는 교양 프로그램이기에 그 빛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선정에도 차별화를 두었다.

이런 「한밤의 TV연예」만의 전문화된 리포터 기용 노하우는 현재까지 이어져 그 동안 임무영, 전유성, 손성은, 오제형, 노정렬, 주영훈 등을 리포터로 발굴했고, 현재는 이기상, 양진석, 정다나, 최은영, 이선희 등 새로운 얼굴들도 합류, 연예계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리포터로 포진해 있다.

이렇듯 「한밤의 TV연예」는 공신력있는 진행자, 특종 취재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보도, 참신한 구성과 기획, 신선한 리포터 기용으로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출발을 보여주며 룡던을 예고했다.

### 최고의 연예 프로그램으로 승승장구

마침내 방송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되는 1995년. 연말 특집이 연예 정보 프로그램으로는 아주 드물게 시청률 톱 10(MSK공식집계)안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다. 특히 「한밤의 TV연예」는 1995년 말 큰 충격을 던진 가수 김성재 사망 사건과 1996년 초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룡라의 표절 시비를 심층 취재하면서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이 두 사건에 대한 「한밤의 TV연예」의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취재는 최고의 연예 저널리즘을 보여준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위상을 떨친 계기가 됐다.

1996년 2월. 심혜진은 진행자로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영화계로 돌아갔고, 그 뒤를 이어 슈퍼모델 출신인 이소라가 새로운 여자 진행자로 발탁되었다. 이계진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이소라는 특유의 침착성과 여유로 생방송에서도 심혜진 못지 않은, 더욱 자연스럽게 꾸밈없는 진행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리포터로 맹활약을 했던 유정현이 이계진의 뒤를 이어 진행을 맡았다. 1996년 중반부터 3년 이상 지속된 유정현, 이소라 진행 체제는 지난해 말 이소라의 개인사정으로 유정현이 단독 진행을 맡아 현재까지 오고 있다.

1996년을 지나 1997년에 접어들면서 「한밤의 TV연예」

이충용 프로듀서가 말하는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5년

### “진행자와 리포터들에게 감사할 따름”

생방송 「한밤의 TV연예」가 2월 9일로 5주년이 된다. 방송 3사 중 우리보다 더 자랑스럽게 지난 5년을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하는 자부심을 가져 보지만 동시에 동참해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우선, 「한밤의 TV연예」는 순수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예계의 주요 사안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연예 저널리즘을 모토로 하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연예계와 일방적으로 영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교양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는 SBS



는 프로그램으로서 안정적인 면모를 갖추며 최고의 연예 프로그램으로 승승장구했다. 특히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한밤의 TV연예」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여러 경쟁 프로그램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1998년 국가적으로 몰아닥친 IMF사태는 연예계, 방송계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한밤의 TV연예」는 진행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리포터와 기획을 개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거듭했고, SBS 간판 프로그램의 자리를 확고히 지켰다.

###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연속

1998~99년, 해가 지나면서 간혹 예전보다 덜 신선하다는 평이 있기도 했지만 「한밤의 TV연예」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연예계 흐름을 주도하고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작년에는 거의 1년 내내 시청률 톱 10안에 드는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했다.

「한밤의 TV연예」가 탄생한 이후 진행자 체제를 남자 아나운서와 여자 연예인으로, 진행 방식은 생방송으로, 각 분야에 여러 명의 리포터를 기용하고, 약간의 기획 아이템과 사건 취재 아이템을 섞어 방송하며 사건과 사고 취재 방식까지 모방한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고 또 생기고 있으나 「한밤의 TV연예」의 독창성을 단순히 모방하는데 그쳤던 많은 유사 프로그램들은 이내 단명하는 비운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한밤의 TV연예」는 앞으로도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선두로서 새로운 시도와 발상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새 천년을 맞아 「한밤의 TV연예」는 연예가 현장 구석구석을 취재하는 동시에 21세기 한국 연예사를 함께 써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sup>SBS</sup>

글/ 김보경 · 방송작가, 사진/ 조광희

의 풍토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한밤의 TV연예」를 만들어 온 진행자와 리포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한밤의 TV연예」의 리포터로 시작하여 진행자로 발탁되고 나아가서 SBS의 대표적인 얼굴이 된 유정현, 음악과 영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예계 제반 문제에 대하여 소신있는 발언을 하는 이무영, 연예계의 수많은 사건사고 현장을 지키면서 현장 취재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조영구, 연예 프로그램에 있어서 꼼꼼한 관찰과 분석이라는 방법을 정립해 온 노정렬, 시각 미술과 일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양진석, 컴퓨터 음악, 재즈, 그리고 뛰어난 언어 감각을 지닌 남궁연, 현재 「한밤」 LA특파원으로 해외스타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이기상 등 이들과 「한밤의 TV연예」가 같이 커 오고 같이 발전하여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한밤의 TV연예」를 함께 제작해 온 모든 사람들, 후배 프로듀서들, 작가들, 그리고 나머지 스태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한밤의 TV연예」가 5주년을 맞는 이 시점은 급변하는 첨단 뉴미디어 시대이며, 여기에 편승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웹 주소는 <http://hanbam.sbs.co.kr>이다.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영화, 음악, 스타들에 대한 소식을 최고의 동영상으로 서비스하는 홈페이지이며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시청자를 만나는 것이 가슴 설레일 정도로 기다려진다.

## 시청자를 우선하는 강단있는 노력

「출발! 모닝와이드」 앵커

# 최희준



새벽 5시, 보도본부가 있는 3층에는 어김없이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최희준 기자의 출근을 알리는 소리다. 어림잡아 1년 반 정도 새벽 방송을 계속하면서도 마냥 웃는 얼굴에 그런 콧노래가 나오는지? 정말 경이로운 체력이다. 이 때문인지 최희준 기자를 처음 봤을 때, 토종답 오골계가 떠올랐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강단있는 성격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지금은 「출발! 모닝와이드」 진행자이지만, 그는 얼마 전까지 1부의 '오늘의 외신' 코너를 맡고 있었다. 국제부 새벽반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이 코너를 자주 봤는데, 방송 스타일과 관련해 최기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송 중에도 느닷없이 터져나오는 웃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자유분방한 말투. 미국 유학 경험 때문인지(그는 미국 콜롬비아대학 저널리즘 과정 석사 학위 소지자다) 굳이 구분하자면 미국식 방송이라고 할까. 때때로 과연 저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기자들이 모여 있는 보도본부에는 엄격하고 때로는 고지식한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희준 기자의 자유분방한 스타일은 이런 보도본부의 기준에서 볼 때, 분명히 이질적인 것이었고 선배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회를 엿보던 필자는 기어코 그에게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봤다. 그 때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중계차 리포트를 할



시청자가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이른  
아침 시간에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  
최고라는 최희준 기자.  
그는 나름대로 정한  
이 원칙을 고집스레  
밀고 나가며  
하루를 여는  
「출발! 모닝와이드」를  
지키고 있다.

때 겪었던 일화를 말하기 시작했다.

때는 1993년 추석, 서울역 앞. 1분 30초짜리 원고를 외우느라 한 시간째 고생한 뒤에 큐사인이 들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 만남의 광장입니다”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앵커가 “거기 서울역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순간, 대형사고를 직감한 그는 머리 속이 텅 비는 느낌에 원고에 얼굴을 묻고 냅다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초년병 시절의 긴장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만, 자연스러움을 잃어 버렸기에 생겼던 슬픈 과거라고 고백했다.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태도로는 결코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시청자가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이른 아침

시간에는, 시청자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 최고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때문에 말은 조금 빠르게, 대신 어투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릴 것. 최희준 기자는 나름대로 정한 이 원칙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 마침내 「출발! 모닝와이드」 진행자로 발탁되기까지 했으니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그의 노력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이제 우리의 ‘오골계’, 최희준 기자는 매일 아침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시청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항상 시청자를 우선하는 강단있는 노력이 부디 끝까지 이어져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sup>SBS</sup>

글/ 최선호 · 보도본부, 사진/ 서창식



# 행복을 전달하는 아침의 두 전령사

## 한선교 & 정은아

**두**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다. 행복한 사람들의 눈가에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여 있듯 그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 평화를 나누어주기 위해 세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온 전령사 같았다. 그 두 사람은. 전생에도 행복했거나 아니면 모질게도 그 반대 경우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도 행복을 줄 줄 흘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 때 휘어잡지 못한 행복을 둘둘 마느라 바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한선교는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 아침」의 메시지를 단숨에 정의한다.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는 법과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가이드 역할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사랑과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저는 신혼 초부터 아침 방송을 맡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아침 방송의 특성이 그렇듯이 일단은 시청자층이 주부예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아내와 약간 다투고 나온 날은 방송하기가 그렇게 어렵듯이,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느냐가 곧바로 시청자의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잘 하는 게 우선이라

고 생각하죠. '가화만사성'이란 말을 실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방송에서도 거짓말 같은 건 안하게 되죠. 저는 제가 방송한 만큼만 살려고 해요. 방송에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쓸쓸한 아이러니가 어딴겠어요?"

편안해서 그런가. 그의 언변에는 신뢰가 묻어 있다. 소탈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벽을 만들어 세울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은 인간이자 사내로서의 장점이면서 사람됨의 기초이기도 할 것이다. 거기에 깔끔함마저 타고나 그는 남들 앞에서서는 직업을 택하게 됐는지 모른다.

여공으로 출발해 하버드 박사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인생 선배, 서진규 씨와의 자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50세가 넘어서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서씨의 인생 여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그래서 구세대로 밀려나는 사람들에게 꿈 실현의 기회를 모델로나마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는 그와의 인터뷰가 눈물겹기까지 했다고 밝힌다.

###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진실을 포착

보기에 멋쟁이일 것 같고, 자신의 일에 다부진 욕심이 앞설 것 같고, 게다가 푹소리 나는 여자로 인식되고 있는 정은아는 자신의 그런 이미지가 단지 방송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녀가 밝힌 자신의 '참모습 폭로'에 의하면 일단 그녀는

꾸미고 화장하고 입는 것에 워낙 둔한 여자라 선후배들 사이에서 스타일을

찾으라는 질책도 많이 들었다. 워낙 긴장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 실

수라고 할만 한 게 별로 없고, 프로그램에 정돈된 모습으로

비쳐야 하니까, 남들이 아무지거나 욕심이 많다고 볼 수

있던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푹푹한

게 아니라 지적 허영심이 많은데다가 자신과의 싸움을 즐기는,

이른바 노력형의 전형이라고 밝힌다.

"저는 「좋은 아침」을 진행하면서 책에서 얻는 것 이상의 많은 걸

공부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만난 분들은 결인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었거든요. 자기 자리를 만든 사람, 이

를테면 세상 사람들이 출세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위치가 그냥 쌓아올려진 게 아니어서 진심으로

존경할 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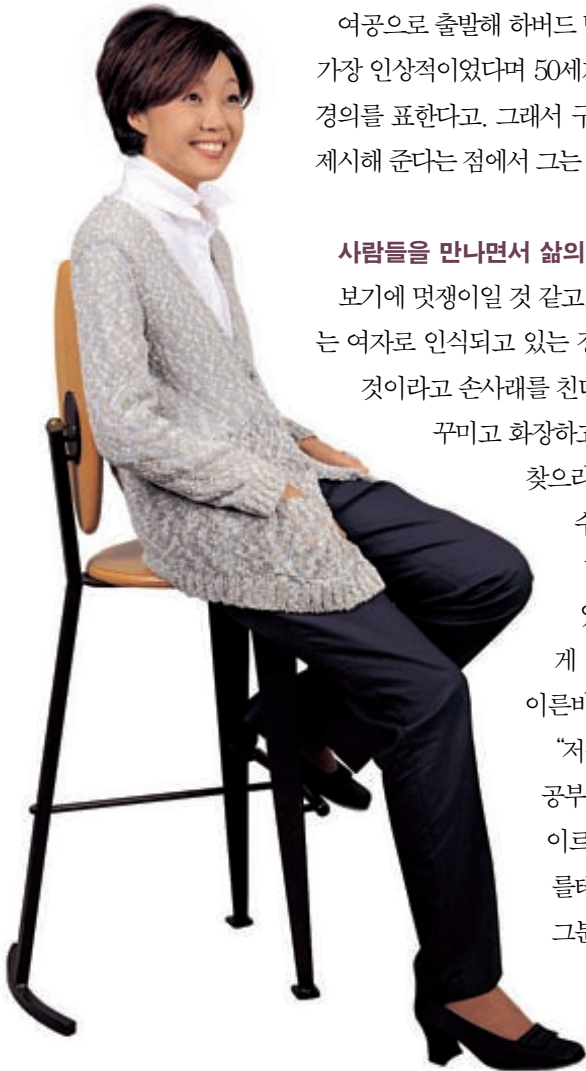
또 출세한 사람만이 이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작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 속에서도 깊이와 삶의 진실을 포착할 수 있었죠.

제가 원래 낮은 사람을 만나도 제일 먼저 호기심이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들을 만난다는 건, 그리고 진솔함을 엿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



시해 주는 표본이 되기도 했죠. 저는 「좋은 아침」을 통해 세상을, 또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 둘이 있기에 시청자들의 아침은 행복하다

두 사람과의 각기 다른 인터뷰를 통해 얻은 공통점 다섯 가지. 둘 다 프리랜서 진행자라는 것과 상상 외로 털털하고 소박하다는 것. 또 방송에 임하면서 잔재주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됨을 자신의 일 최선상에 올려두고 있다는 것과 방송인으로서라기 보다는 편한 이웃같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방송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무너진다는 방송관까지. 아니다. 그리고보니 한 가지가 더 있다. 스포츠를 무지무지 좋아한다는 것.

한선교는 장차 스포츠 전문 방송인으로도 활약해 보고 싶다고 했고 인터뷰 후의 일 정도 농구 경기를 보러 잠실 실내 체육관에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은아는 뽀뽀기도 못했고 체력장 공포에 떨었던 자신이, 결혼 후 남편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운동을 즐길 정도의 스포츠파이 되었는가 하면, 앞으로는 스포츠 분야의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정도이다.

둘의 유난히 잘 맞는 호흡 때문일까. 그 둘의 일하는 스타일은 ‘이심전심형’이다. 달달 외운다거나 그다지 간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방송 준비가 끝난 셈이다. 그래서 그 둘은 방송가에서 이미 서로를 건드리지도 빛 바래게도 하지 않는, 서로를 돌보이게 하고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의 ‘단짠’으로 통한다.

그러면서 서로의 자리를 그윽히 넘겨다봐 주는 선후배 사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몸담았던 굴레를 벗고 언제나 자극과 실험이 있는 세상으로 튕겨져 나온 두 사람의 같으면서도 다른 길. 챙길 건 챙기고, 부족함이 있으면 더해주는 입장이 되고,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러면서 둘은 공동체를 이룬다.

둘이 있기에 우리의 아침은 다르다. 아침부터 덜그럭대지도 않고, 하품이 잦지도 않으며, 기운 없지도 않다. 아침에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그 사람 기운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침 거울 속에서 매일 두 사람을 만난다. 두 사람이 지금 각자 따로 서서, 또는 함께 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침 이미지를 대표한다. 그랬다. 두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다. <sup>SBS</sup>



글 / 이병률 · 시인, 사진 / 조광희





「코리아 GO! GO! GO!」는 한국, 한국인을 우리의 시각에서 솔직하게 그리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인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더러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의 눈 속에 비친 한국”이나 “외국과의 비교 속에 존재하는 한국” 등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화상’을 그린다. 우리만이 아는, 우리라면 느낄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해 바깥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속살’을 그려내는 것이다.

**고**호의 '자화상'은 보면 볼수록 묘한 구석이 있다. 좀 빼떨어지고, 별로 사실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못 그렸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볼 때마다 고희라는 인간은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희라는 인간의 성격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걸모습 속에 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고희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려진 것이다. 물론 사물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화가나 사진가도 다른 방식으로 고희로부터 어떤 진실을 끄집어 낼 수 있었겠지만, '자화상'이라는 한 장의 그림 속에 응축된 고희라는 인간 자체는 오직 고희만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이니까.

우리는 5,000만의 개체로 구성된 한국인들 속에서 작은

부터 유전된 사고 방식이나 감정들을 그려낼 수 있다면 한국인을 묘사하는데 있어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모아질 것이다. 또 우리의 실험을 주제로 진행자와 패널들이 각자의 생각을 활발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 내게 남겨진 마지막 하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떤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고 진작 해결했어야만 했지만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침승은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라는 속담처럼 각박한 세상살이 때문에 가슴 속 깊은 곳에 숨어 버린 착한 마음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 코너이다. 아침부터 자정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50만 원을 써야 한다. 단 평소

# 우리 손으로 그려내는 한국인의 자화상

프로그램 탐험 | 「코리아 GO!GO!GO!」

기획/박희설, 진행/김승현, 김태욱, 최영주, 연출/최창현, 신범수, 유석현  
제작/SBS프로덕션, 방송/월요일 저녁 7시 15분

공통점들을 모아 '한 명의 한국인'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 행태들, 독특한 사고 방식들을 편셋으로 집어내어 모으면 한 명의 살아있는 듯한 인간을 그려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있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도 있었지만 벽화 그리기는 시작되었다. 아직 그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채워져 갈수록 5,000만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명의 한국인'의 모습은 뚜렷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질 것이다.

### 한국본색

한국본색은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속성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코너다. 남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우는 제스처일 수도 있다. 그런 작은 동작 속에 내포된 한국인의 공통된, 먼 옛날

에 꼭 하고 싶었던 착한 일 한가지를 해야 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미있는 일 3가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코너를 통해 삶에서 진정 가치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던져지기를 바란다.

### 남은 일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뒤뚱거리기도 하고, 가끔 헤매기도 하고, 벽에 부딪쳐 이마에 혹이 나기도 할 것이다. 그 모든 과정들이 제작진들에게는 아픈 경험이 될 것이다. 다만 온전히 자라 견고 달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시청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앞날의 어려움을 즐기어 맞이하겠다. SBS

글/ 유석현 · 「코리아 GO!GO!GO!」 프로듀서, 사진/김연식



화제의 코너 |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의 '청기백기홍록기'

일요일 저녁 6시 50분 방송

# N세대의 인기를 싹쓸이 한다

“**붕** 어땀엔 붕어가 없듯 '청기백기홍록기'엔 홍록기가 없다!” 무슨 카피 문구인 듯 싶지만, 알고보면 '청기백기홍록기'는 이름 그대로 깃발의 이름이다. 그리고 SBS 주말 간판 프로그램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의 메인 코너 'MC 삼국지'에 등장하는 고정 게임 이름이기도 하다.

요즘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이 방송되고 나면 문의전화 가 쇄도한다. '청기백기홍록기' 게임을 어디 가면 할 수 있는

냐?, '청기백기홍록기'에 왜 록기형은 안 나오냐?, 간혹 예의 바른 친구들(?)은 '청기백기홍록기'가 친구들과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귀에 익은 스머프 음악에 맞춰 손과 발을 이용한 5색 깃발 올리기 게임.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논리이다. 예전 오락실에서 사용하던 '청기 올려, 백기 올려' 게임을 시대에 맞게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이 버전업한 아이디어성 게임이다.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이 방송된 지 2달이 지났다. 그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 천년 들어 새롭게 탄생한 코너가 바로 이 '청기백기홍록기' 게임이 들어있는 'MC 삼국지'이다.

이희재, 이훈, 유재석 등 3명의 진행자가 각각 휘나라, 훈나라, 재나라의 수장이 되어 매주 대결을 펼쳐 그 중 진행자 왕중왕을 가리자는 것이 기획 의도인데, 그렇다면 매주 대결 중에 인구에 회자될 만한 고정 게임은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 탄생된 것이 바로 '청기백기홍록기'이다.

쉬운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DDR이나 비트메니아 등 손

이 의외로 이 코너에선 가장 취약한 편이다. 또한 그 반대로 뛰는 데엔 일가견이 있는 '베뚜기' 유재석이 가장 활개를 치는 코너이기도 하다.

그 동안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코너의 이름은 단순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듣는 즉시 느낌이 와야 한다. '청기백기홍록기'. 처음엔 홍록기란 이름 때문에 오히려 어색하게 느꼈지만 있는 그대로 홍록기는 깃발의 이름일 뿐이다. 다만 홍록기처럼 날렵한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선 이미 개그맨 홍록기까지 출연해서

위에 익은 스머프 음악에 맞춰 손과 발을 이용한 5색 깃발 올리기 게임, '청기백기홍록기'는 예전의 '청기 올려, 백기 올려' 게임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했다. 단순하면서도 흥미있는 '청기백기홍록기' 게임이 N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일본에서 건너온 DDR 못지 않게 범국민적인 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 발을 쓰는 게임에 익숙한 세대라 그런지 N세대들의 눈길을 끌기엔 충분했던 모양이다. 간혹 어른들 중에 복잡해서 '청기백기홍록기'가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젊은 방청객이나 출연 연예인 그리고 N세대 사이에선 그들의 말을 빌어 인기 '짱' 이란다.

일례로 얼마 전 박수홍이 출연했을 당시, 밤새 연습하고 온 박수홍의 실수를 스텝들이 미처 발견 못하고 지나치자 방청객이 지적하는 바람에 NG가 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매주 대결에서 가장 긴장하는 것은 역시 진행자 3인방! '청기백기홍록기'의 결과에 따라 'MC 삼국지'의 승패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경기보다 긴장감이 감돈다.('MC 삼국지' 패자에겐 어머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 골대, 인간 인어공주 등 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벌칙들임)

그 중에서도 평소 사나이답다고 큰소리 뽕뽕 쳐 온 이훈

인증(?)을 마친 상태이다.

단순하면서도 흥미있는 '청기백기홍록기' 게임. 기회가 닿는다면 연예인 대회는 물론 일반인 대회도 가져 볼 예정이다. 일본에서 건너온 DDR 못지 않게 범국민적인 게임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다만 요즘은 출연자들마다 지나간 방송분을 녹화해 연습하고 오는 통에 깃발 수를 5색에서 6색으로, 발판 역시 수동에서 자동으로 버전업 시킬 예정이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 대중 문화의 키워드는 바로 웃음과 공감이다. 역시 웃음은 향기가 없다. 그리고 텔레비전 시티에선 영원한 영주권은 없는 듯하다. 패각과 추방이 수시로 일어나는 곳에서 시청자들에게 공감대 있는 웃음, 그야말로 힘나는 일요일을 만들기 위해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 팀은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찬 격려를, 힘찬 박수를 띄워주길 바랄 뿐이다. SBS

글/한경진 ·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 프로듀서, 사진/서창식

# 「생명의 기적」 방송, 그 후 미래 세대를 위한 생명의 메시지

2000년 신년 특집으로 방송되었던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이 방송되자마자 시청자들의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수중분만과 에이즈, 암 등에 걸린 임산부들의 출산 등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제작된 탄생문화에 대한 실제 모습과 심도 깊은 분석이 뒷받침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출산은 고통이 아니라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했고, 현명한 출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명의 기적」 2부가 방송될 때는 아직 3부 종합편집을 끝내지 못해 방송사에 있었지만 1부와 3부가 방송될 때는 올해 11살 된 딸과 같이 시청했다. 무엇보다도 딸 아이가 보고 느끼고 배울 점이 많은 프로그램이길 바랐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 아이의 얼굴이 때론 인상이 찡그려졌다가 웃기도 하고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했다.

먼저 1부를 보고 난 후 아이에게 물었다(딸의 이름은 '하림'인데 그 애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아이가 어디로 나오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누누이 교육을 받았음).

“어땠어?”

“아기를 낳는다는 게 저런 건지 정말 몰랐어. 굉장히 아픈 것 같은데...”

“아기 낳는 모습이 징그럽지는 않았어?”

“응,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괜찮던데.”

매우 다행스런 반응이었다.



1부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 미혼의 남녀들이 더 많이 봐주기를 기대했다. 과거에 아기를 다 낳은 사람들이 보고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보다 미래에 아기를 낳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준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봐도 이해가 되도록 만드는데 신경을 썼다. 방송 후 시청자 반응은 나의 기대를 훨씬 넘었다.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해 쏟아지는 시청평과 빗발치는 인터뷰 요청, 격려 전화 등 ‘출산이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미혼 여성, ‘내가 커서 아기를 낳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본 것처럼 아이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산모와 아기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대생... 이런 시청자들의 반응이 힘이 되었다.

3부를 보고 나서는 사실 아이의 반응을 묻기가 두려웠다.



왜냐하면 제왕절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기 때문이었다. 각오를 하고 시청 소감을 물었다. 잠시 아이가 대답이 없었다. 그러더니 “나도 수술 해서 낳았잖아... 그 때 엄마가 많이 힘들었나봐?” 몹시 실망한 눈치였다. 할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싶었다.

“하림아, 아빠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건 하림이를 제왕절개로 낳고 아빠가 후회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 엄마도 마찬가지로 후회하고 있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아빠는 그때만 해도 제왕절개 수술이 하림이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은,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무통 분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너를 낳는다고 수술을 한 거야. 그 때 엄마 몸도 약했고... 하지만 지금 너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착하잖아. 네가 엄마 아빠를 이해해 주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거야.”

아빠의 치절한 설명에 아이는 씩 웃고 넘어가 주었다.

3부 방송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왕절개에 대해 잘 알려주어서 고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몇몇 시청자로부터는 나의 경우처럼 곤혹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기는 최선을 다 하다 수술을 했는데 방송에서 수술이 안 좋다고 말

하면 자기가 뭐가 되냐고, 남편 볼 면목도 없고 시집 식구 대하기 부끄럽다고... 항의 반 한숨 반 전화를 걸어온 시청자도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생명의 기적」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생명문화, 탄생문화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편집 스케줄에 맞춰 아기를 수술해 낳았던 나부터 철저한 반성 없이는 공허한 얘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미래 아기를 낳을 세대에게 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3부를 같이 시청한 아이가 끝으로 물었다.

“아빠, 프로그램을 다 보니까 정자가 난자를 만나 수정을 하고 아기가 생겨서 열 달 지나, 아기를 어떻게 낳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아빠의 정자가 엄마 배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 거야?”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심정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아이는 끝내 그 날 그 단순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은 그만 자자.”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밤이었다. <sup>SBS</sup>

글/ 박정훈 · 「생명의 기적」 프로듀서



스포트라이트

「왕룡의 대지」 개성과 여성 연기자 6인

# 깊이 있는 연기로 드라마를 빛낸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 라는 말이 있다. 남자와 여자는 따로 존재할 수도 없고, 따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의미이리라. 「왕룡의 대지」도 큰 축을 이루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안에서 대부분을 이끌어 가는 것은 여자들이다. 전편에 이어 「왕룡의 대지」가 시청자들의 눈을 끄는 것도 이런 여자들의 내면 연기 때문은 아닐까?



**십** 년 전의 일기를 꺼내본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십 년의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만큼 길다. 그렇지만, 십 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보면, 바로 어제의 일처럼 가볍게 느껴진다. SBS 주말 드라마 「왕룡의 대지」는 지난 89년 방송됐던 「왕룡일가」의 십 년 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십 년이라는 기간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바로 어제의 기억처럼 친근하게 다가온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변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같거나, 비슷한 삶의 모습을 꾸려가고 있다. 「왕룡의 대지」가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던 십 년이라는 시간을 찬찬히 되돌아보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왕룡의 대지」는 힘이 있는 드라마이다. 삶이란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일상적인 소재 속에서 재치있게 끌어낸다. “아 맞아, 우리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감탄하면서 무릎을 칠만한 낯익은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등장한다. 여성 시청자들이 월등히 많은 드라마들 속에서 오랜만에 남자들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웃고, 찢끔거리게 하는 강약이 있다.

「왕룡의 대지」는 남자가 주축이 된다. 그렇지만, 드라마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남자들의 이야기를 빛나게 해주는 것은 여자들의 몫이다. 「왕룡의 대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 연기자들은 만만치 않은 연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들이다. 그녀들은 각각의 색깔있는 연기로 「왕룡의 대지」를 빛나게 만든다. 그 개성있는 여자들의 내면을 살짝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 각기 다른 꿈과 과거를 안고 사는 삼십대

먼저 삼십 중반에 들어선 세 여자를 보자. 미애(배종옥 분)는 결혼 후 브라질로 이민을 떠나 십 년의 시간을 지내고 남편의 배신을 느끼며 딸만 데리고 돌아왔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다시 돌아온 세계에 안주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십 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자신이 이전처럼 똑똑함과 영민함으로 가족과 이웃의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지나고 연민어린 눈길을 받게 되었다는 걸 느낀다. 늘 마음 한 쪽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다. 똑똑한 여자들이 자신의 실수로 겪는 삼십대를 미애는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미애의 역할을 배종옥은 깊이 있게 연기해 낸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타인의 삼십대 중반을 대변하듯 실감있게 나타낸다. 배종옥 자신 역시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미애와 같은 나이인 서울댁(조민수 분)은 미애와는 전혀 다른 삼십대 중반을 겪고 있다. 젊음만을 믿고 살았고, 허황한 꿈을 꾸던 서울댁에게 삼십대는 이미 시들어버린 인생인 것이다. 미애가 가슴 속에 뭉가 채우려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서울댁은 시아버지로부터 한 몫을 챙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조민수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천역덕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다. 맹한 눈빛과 과장된 모습으로 서울댁의 삼십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살피게 한다. 조민수의 연기 변신은 언제나 새롭다.



삼십대 후반의 경분(방은진 분)은 지난 시절을 안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소녀 취향의 여자이다. 지난 날 화려했던 자신의 무대생활, 지난 날 사랑했던 자신의 첫사랑. 그것이 경분이 삼십대 후반을 채워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생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과거를 뒤돌아보며 주저앉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분에게 가장 뛰어난 수 없는 장벽이 바로 과거가 되어버린다. 경분은 늘 주저앉아 있는 꼴이다.

방은진은 조금은 퇴폐적이고, 복잡한 여자 역할을 하면서 조금은 낯설은 자신의 모습을 잘 채워주고 있다. 연기자 방은진의 모습이 조금씩 시청자들에게 친숙해져 갈 때 「왕릉의 대지」 속 경분은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지도 모른다.

### 위태롭고 애처롭지만 곳곳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십대

이제 사십대의 여자를 보자. 교하댁(김자옥 분)은 지난 시절 꽃뱀 출신의 여자이다. 그녀에게 지난 시절은 후회와 참회이다. 그런 교하댁이 맞이하는 사십대 후반은 아마도 인생의 끝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하댁은 더욱 더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지도 모른다. 자신의 실수와 후회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며 왕릉을 유혹하려고 애쓴다.

김자옥의 공주병다운 연기가 완숙하게 드러나는 역할이다. 김자옥은 언제나 스스로를 꾸밀 수 있는 연기자다. 사십대 후반의 여자가 얼마나 예쁠 수 있는지, 과거가 복잡한 여자가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지 김자옥의 연기를 보면서 느끼게 된다.

또 다른 사십대 은실네(박혜숙 분)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친아들 봉필(장혁 분)과 쿠웨이트 박(최주봉 분)의 아들 민호(소지섭 분)에게 애정을 베푸는 것을 인생의 의미로 여기기 시작했다. 흔히 나이 사십에 접어들어 여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자식에 대한 집착과 의존적인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은실네에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젊은 그들에게서 유일한 탈출구인 희망을 찾는 일뿐이다.

은실네에겐 젊은이들의 인생만이 중요하다. 지나간 사람들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어쩌면 가장 위험하면서도 애처로운 사십대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은실네의 행복은 과연 정직한 행복인가? 자신의 친아들은 자꾸 비뚤어져 나가고, 친아들처럼 여기는 자식이 성공하는 것을 과연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박혜숙의 연기는 자연스럽다.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들의 자화상이 물씬 묻어나는 그의 연기는 언제나 푸근하게 보인다.



### “바뀐”을 외치는 대모, 오란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대모격인 오란(김영옥 분)을 보자.

「왕룡의 대지」에 나오는 다섯 여자들이 겪는 세월의 비슷비슷한 상처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비로소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는 가장 강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 바라보았던 남편에게 반항을 시작해 이혼을 요구하고,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도, 옛날과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은 지겹다고 끊임없이 외치며 변화를 주장한다. 왕룡 일가에서 변화를 주장하는 여성은 삼십대도 아닌 사십대도 아닌 육십대 후반의 오란인 것이다.

김영옥의 연기는 늘 극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꼳꼳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연기자가 아닌, 진정 인생을 알게 된 한 여자의 눈빛을 본다는 것으로도 김영옥의 오란 연기는 신선하다.

누구에게나 지금 자신의 나이는 힘에 겹고, 눈물나고, 가장 힘든 시기이다. 「왕룡의 대지」에 나오는 여섯 명의 여자들은 바꾸고 싶어한다. 어쩌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저 매정한 시간마저도. 인생의 습관성,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굳은 살처럼 박혀버린 과거의 후회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그 치열함으로 그녀들은 차츰차츰 행복을 배워가지 않을까? 「왕룡의 대지」를 보는 내내 아주 가까운데 숨어 있는 행복을 찾아가고 싶다. <sup>SBS</sup>

글/김은정 · 소설가, 사진/김연식

# SBS, 한국스포츠TV 인수

민영방송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CATV업계 발전의 계기 마련

SBS가 지난달 한국스포츠TV(케이블, 채널 30)를 인수, 종합영상매체그룹으로 발돋움했다.

지난달 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한 한국스포츠TV 매각심의회에서 SBS가 인수자로 결정됨에 따라 SBS는 골프채널과 현재 승인을 신청해 놓은 축구채널 등과 함께 스포츠 복수 프로그램 공급자(MPP)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SBS의 스포츠TV 인수는 골프채널 인수, 축구채널 신청, 농구단 운영 등 그 동안 스포츠 발전을 위해 열정과 투자를 쏟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다 채널 시대 스포츠 콘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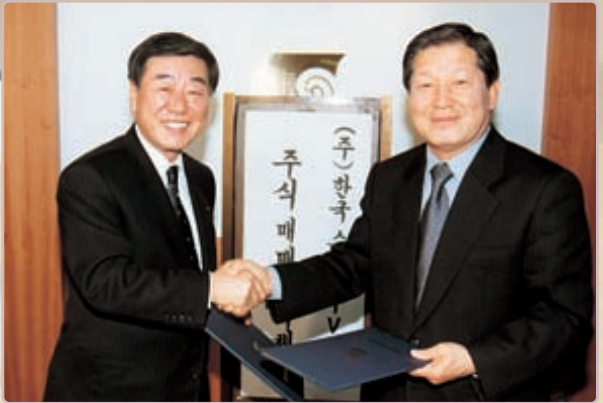
확인한 것이다.

SBS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51퍼센트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받고 한국스포츠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첫째, 지상파 SBS의 풍부한 스포츠 콘텐츠 공급능력을 기반으로 방송 경영의 핵심인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통해서 스포츠 방송 중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해 SBS에서 독립 법인화 한 카메라·미술품·기술 등 방송제작에 필수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을 뒷받침하는 등 스포츠TV의

# SPORTS

SBS가 한국스포츠TV 인수로  
 종합영상매체그룹으로 도약했다.  
 특히 골프채널, 축구채널 등과 SBS 스포츠 MPP를  
 구성, 경쟁력 확보 및 민영방송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CATV업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프로그램 향상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스포츠TV를 중심으로 골프채널 및 축구채널과 함께 SBS 스포츠 MPP를 구성하여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셋째, 광고 DB 공유로 구매·홍보·관측 등 채널 간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스포츠 통합 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SBS는 지상파 운영 능력과 골프채널 인수 후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킨 노하우를 이어받아 여기에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자율과 책임 경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성장도약 기반을 다질 생각이다. 이로써 케이블 방송 사업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면서 업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BS는 이와 함께 새로운 통합방송법에 따른 거대한 해외 방송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준비된 국내 스포츠 사업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계권료·판권료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막대한 외화의 해외 유출을 막고 스포츠 방송 사업자의 동반 부실을 피하며, 스포츠 강국인 한국을 아시아의 스포츠 발신기지로 전환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다. <sup>SBS</sup>

# 고독과 근성으로 일군 3차원 세계

SBS 아트텍 아트2팀 한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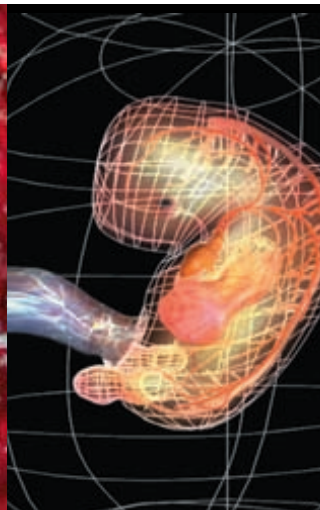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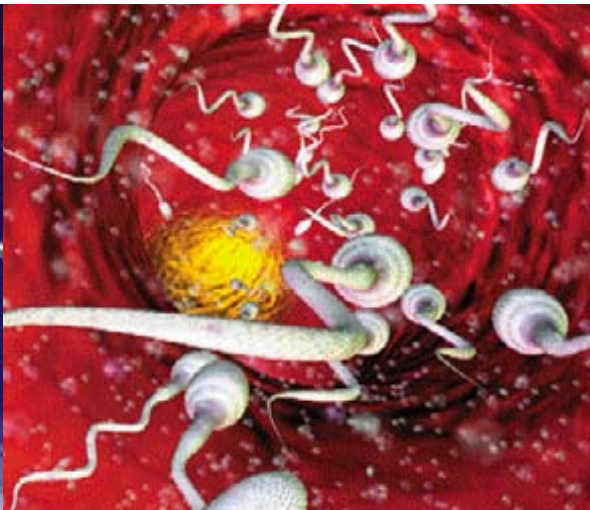
**겨**울 나무'. 처음 그를 봤을 때 무작정 떠오른 이미지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 홀로 서 있는 겨울 나무. 조금은 외로울 것 같고, 철학적인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시를 쓸 것만 같은... 하지만 SBS 아트텍의 한영권 씨(38세)는 3차원 입체 디자인을 하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마력

국내에선 아직 컴퓨터 그래픽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1987년. 대학에서 무역을 전공한 후 이른바 '백수'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모 대기업의 텔레비전 광고의 장면 하나가 그의 시야에 잡혔다. 그것은 한 남자가 메인 스타디움을 번쩍 들어올리는 내용이었다.

“그래, 바로 저거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 마치 현실처럼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게 바로 컴퓨터 그래픽의 위대한 힘이라는 걸 알아채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당장 짐을 꾸렸다. 그리고는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날아갔다. 그의 나이 스물여섯의 일이었다.

“꼭 미술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상상 속



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고작 16인치 정도 되는 공간 안에서 현실이 된다는 게.”

그리고 2년 후, 그는 ‘앞서 준비한 자의 당당함을 안고 돌아왔다. 이 분야 사람들에게선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 컴퓨터 그래픽 프로덕션에 입사했다. 그는 그곳에서 텔레비전 광고의 컴퓨터 그래픽을 하게 된다. 그의 처녀작은 르누아르 광고였다. 그 후 대기업의 가전 제품, 컴퓨터 광고 등등 그의 손을 거친 작품들이 줄줄이 탄생됐다. 몇 날 며칠 밤샘 작업이 진행됐다. 그래도 마냥 좋았다. 그러던 1995년 어느 날, 그는 SBS와 인연을 맺게 된다.

### 살인적인 밤샘 작업의 희열

그는 워낙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 몰라보게 수척해졌다 고 한다.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봅니다. 방송사 일이라는 게 그래요. 광고주가 바라는 대로 제작만 해주면 되는 프로덕션 일과는 시작부터 달라요. 이곳에선 처음 콘티 작성부터 제 스스로 해야 하거든요. 하긴 그게 이 일의 진짜 매력인지도 모르지만요.”

최근 장안에 화제가 된 프로그램, 「생명의 신비」. 바로 그 프로그램의 컴퓨터

그래픽이 그가 두 달 반 가량 낮과 밤을 바꿔가며 만들어낸 작품이다. 무심코 지나치는 화면 위의 그림과 글자들이 그 누군가의 살인적인 밤샘 작업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하루 평균 스무 시간이 넘는 노동, 가족과의 생이별, 자꾸만 한계에 다다른 체력 등등. 그가 넘어야 하는 산은 높고도 험했다. 그래도 그런 고통의 기억은 방영 후 주위에서 쏟아지는 칭찬과 찬사의 말에 거짓말처럼 사그러든다. 시청자들의 인정, 바로 그것이 오늘도 그가 마우스를 잡는 이유인 것이다.

### 수많은 회의를 극복해 낸 10년의 세월

그는 방송사에 들어온 후 줄곧 굵직굵직한 일들을 맡아 왔다. 96년 총선, 97년 대선, 애틀란타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등. 방송사에 입사해 첫 작품을 만들던 때를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던 그는 도중에 뛰쳐나왔다. 눈물이 흘러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 감동의 눈물? 천만에다.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가 일터군요. 겨우 이 정도가. 도대체 지난 4, 5년간 뭘 했던 건가.”

이 길이 아닌 것도 같았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다른 데 있는 듯 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 그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 이들이 있다. 아내 장선옥 씨(36세)와 두 아들 승호(6세), 중호(4세)가 바로 그들. 남편의 고된 일을 이해하는 아내, 잘 놀아주지 않는 아빠에게 투정 한 번 부린 적 없는 두 아들. 그는 그들의 영원한 울타리가 돼 줘야 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그가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접하고 1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컴퓨터 그래픽이 뭘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이제야... 그에겐 꿈이 하나 있다. 그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컴퓨터 그래픽에 푹 빠져 살고 싶은 것. 그게 그의 유일한 꿈이다. **SBS**

글/이언영 · 자유기고가, 사진/조광희

# 제2회 TV문학상 공모

SBS 문화재단에서는 SBS 창사 10주년 기념으로 완성도 높은 TV극본 확보와 유능한 신인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제2회 TV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창작의 열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 7,0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공모의 당선작은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송되며, 당선자들은 SBS 전속 작가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공모 부문 및 내용

1. 픽션 부문(방송 극본)
  - 60분 × 2부 (각 부별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의 줄거리 요약 첨부
  - 소재, 주제 제한 없이 방송 가능한 순수 창작물
2. 논픽션 부문
  - 200자 원고지 180매 내외 이상 무제한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의 줄거리 요약 첨부
  - 소재, 주제 제한 없음

## ◎ 공모 자격

신인 · 기성 구분없음

## ◎ 상금 : 총 7,000만 원

1. 픽션 부문(5,000만 원)
  - 최우수상 : 2,000만 원(2,000만 원 × 1편)
  - 우수상 : 3,000만 원(1,000만 원 × 3편)
2. 논픽션 부문(2,000만 원)
  - 최우수상 : 1,000만 원(1,000만 원 × 1편)
  - 우수상 : 1,000만 원(500만 원 × 2편)

## ◎ 일정

1. 접수 마감 : 2000년 4월 10일
2. 당선작 발표 : 2000년 5월 26일


## ◎ 접수처

(우)157-030 서울 강서구 등촌동 58-1  
SBS문화재단 TV문학상 담당자

## ◎ 문의처

SBS문화재단 사무국 : 02)3660-1762  
ARS : 02)369-2917





**표준 FM 103.5MHz  
AM 792KHz  
POWER FM 107.7MHz**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봄을 향한 희망의 기운은 곳곳에서 울트고 있다.  
하얀 눈으로 가득한 세상에도 따스함과 설렘은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  
언제나 따스한 희망의 세상, 라디오 세상처럼...  
그 세상에는 이미 봄의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새 천년, 명의학에게 듣는다」

기획/전윤표, 연출/이정은, 진행/홍혜걸, 월~토요일 아침 8시 40분 방송

## 들으면 건강해지는 라디오의학백과



새 천년의 화두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정보화, 디지털 혁명, 인터넷일까?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시대에 필자는 새 천년의 화두가 건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왜냐고 묻는 사람이라도 곧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설마 나에게 무슨 병이 생길까, 하루 담배 한 갑쯤이야, 소주 한 병은 건강에 도움이 될꺼야..’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무서운 습관 속에서 병을 키워가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는 놀란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하지만 몸은 정확하게 말한다. 병은 오



랫동안의 자극에 의해서 서서히 자라왔다고...

「새 천년 명의에게 듣는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홍혜걸 기자는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이며 중앙일보 의학 전문 기자이다. 큰 키, 서글서글한 눈매, 아나운서 뺨치는 수려한 말솜씨, 각종 의학 정보에 대한 해박한 지식.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은 철학이 있는 의사요, 의학 상식을 전하는 기자라는 점이다.

그는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는 점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다. 안락사 문제, 환자의 남은 생에 대한 존엄성, 현대인의 정신과 관련된 질환 등 새 천년의 건강은 단지 질병만의 문제가 아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 의미에서 홍기자는 건강의 정의가 이미 달라졌다고 얘기한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란 말에 '영적' 건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권태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야 건강하다는 말이다.

### 전문이가 말하는 바람직한 건강

「새 천년, 명의에게 듣는다」는 각 질환에 대한 한국의 가장 저명한 전문가가 출연해 가장 최근의, 가장 바람직한 건강 이야기를 전한다. 새 천년 2주일 동안 아주대 순환기내과 최병일 박사의 고혈압 이야기, 그 다음 2주일간 세브

란스 소화기내과 한광협 박사의 간 이야기가 이어졌고, 이달엔 심장과 전문의 이종구 박사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병은 내결에 소리없이 와 앉는다. 지금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라도 방송을 듣고 잘 새겨두면 두고두고 보배가 되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홍혜걸 기자는 건강을 위해선 기본에 충실하자는 얘기를 한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비법은 없다. 흔한 상식의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연만으로도 평균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술은 하루 3잔 정도면 건강에도 도움된다. 운동은 하루 30분 1주일 4회 이상, 식사는 골고루 규칙적으로 조금 적게 섭취하고, 수면은 8시간을 지킨다. 스트레스를 위한 자신만의 이완의 노하우를 만들고, 암의 조기 발견에 힘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방어운전을 익히고, 비타민제를 복용한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신다. 이러한 홍기자의 주문을 실천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새 천년엔 개인의 행복이 우선하는 시대다. 나의 행복은, 가족과 이웃의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sup>585</sup>

글/이정은 · 「새 천년, 명의에게 듣는다」 프로듀서, 사진/조광희

#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

기획/박동주, 연출/김광태, 진행/박진희 · 김승현, 매일 밤 10시 방송

## 젊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10대들의 음악 세상

**얼**마 전만 해도 X세대라는 말이 언론매체마다 등장하다 어느새 N세대라는 말이 유행가 가사처럼 온 세상을 지배한 듯하다.

N세대, N세대는 뭘 뜻할까?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돈 탭스콧이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에서 처음으로 N세대라는 말을 썼다고 한다. 네트워크 세대를 의미하는 N세대는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세대. 다시 말해 쌍방향 통신매체가 막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성장한 약 23살까지를 N세대라고 부른다.

### N세대로의 발빠른 접근

SBS 파워 FM은 참 발 빠르게 10대 청소년들, 다시 말해 N세대에게 접근했다. SBS FM은 밤 10시대에 다른 방송사들보다 타깃 청취자 연령층을 낮추고, '10대를 위한, 10대에





의한, 10대들의 방송을 표방하며 N세대들을 향해 방송을 시작했다.

작년 4월 봄 개편 때 모델 출신 탤런트인 김승현과 배두나를 밤 10시대 진행자로 확정했을 때 여의도 방송기는 “과격적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방송사들도 심야 시간대 프로그램들이 10대를 타깃으로 프로그램 체제를 바꿨다.

### 인기 스타가 진행하는 색깔있는 코너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은 요일별 다양한 코너를 마련, 10대들의 귀를 고정시킨다. 월요일 1·2부에는 황당한 실수담을 엮서로 받아 채치있는 유머로 풀어주는 메뚜기 유재석, 이기찬의 ‘오버 왕국’이 있고, 3·4부에서는 HOT의 뒤를 이어 Fly to the Sky가 ‘뮤직 크래프트’를 꾸며주고 있다. 또 화요일은 1·2부에서 신세대 록의 대변자 클릭B의 ‘클릭B 클릭U’가 방송되며 3·4부에서는 ‘유승준의 라디오 극과 극’이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요일은 매주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4행시와 시를 개사하여 랩으로 들려주는 ‘GOD의 밀레니엄 디셔너리’와 ‘NRG의 비법 누설’이 진행되고 목요일은 핑클의 학교 이야기를 다룬 ‘프리 스쿨’과 김장훈의 사랑 콩트 ‘러브 투 러브’가 방송되며 금요일은 청소년들의 장기를 전화

로 들어보는 ‘김건모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와 남·여의 심리를 알아보는 ‘SES의 남녀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말’이 이어진다.

그리고 토요일은 연예가의 뒷 얘기를 들어보는 「스포츠 투데이」 윤경철 기자의 ‘연예가 X파일’과 컴퓨터 통신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연예인을 초대하여 궁금증을 알아보는 ‘스타 초대석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일요일엔 스타들이 선곡하여 들려주는 ‘희노애ROCK’으로 꾸며지고 있다.

여기다 올해 갓 대학교에 입학하는 김승현과 연기, 진행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진희가 프로그램에 빛을 더한다. 박진희가 「텐! 텐! 클럽」에 합류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순발력과 재치, 끼로 푹푹 뭉친 진행자라는 것이 입증됐다. 출연자마다 방송을 마치고 난 뒤 “편안하게 진행을 해줘서 1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고 한마디씩 거든다.

김승현은 날이 갈수록 진행이 여유로워지고 있다. 심성도 착하고 순수한 면을 잃지 않고 있는 그는 최근에는 여러 사람의 상대모사를 개발, 출연자들의 폭소를 유발하기도 한다.

밤 10시, 젊음과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이 꾸준히 10대들의 대변자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것을 약속한다. <sup>385</sup>

글/김광태 ·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 프로듀서, 사진/조광희

TVA

MON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첼로
-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베이사이드 알개들
- 11:35 슈퍼맨
- 12:00 정겨운 우리 가락

TUE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첼로
-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베이사이드 알개들
- 11:35 슈퍼맨
- 12:00 정겨운 우리 가락

WED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첼로
-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베이사이드 알개들
- 11:35 슈퍼맨
- 12:00 정겨운 우리 가락



SBS

CHANNEL 6 2000년 2월 1일 현재

PM

- 4:00 춤추는 젤라비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45 짱구는 못말려
- 6:15 메가레인저
- 6:45 행진
- 7:15 코리아 GO!GO!GO!
- 8:00 SBS 8 뉴스
- 8:40 나팔난 박사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드라마 맛을 보여 드립니다
- 10:55 이홍렬 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PM

- 4:00 춤추는 젤라비
- 4:30 신기한 동물나라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45 짱구는 못말려
- 6:15 메가레인저
- 6:45 행진
- 7:15 스타 쇼
- 8:00 SBS 8 뉴스
- 8:40 나팔난 박사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드라마 맛을 보여 드립니다
- 10:55 오늘과 내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PM

- 4:00 춤추는 젤라비
- 4:30 신기한 동물나라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 5:45 구슬동자
- 6:15 포켓 몬스터
- 6:45 행진
- 7:15 머리가 좋아지는 TV
- 8:00 SBS 8 뉴스
- 8:40 나팔난 박사
-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특별 기획 불꽃
- 10:55 김혜수 플러스 유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설날 특선 대작

SBS는 2000년 설날을 맞이하여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국내·외 명화를 준비했다. 그 중 특선 대작 3편을 소개한다.

「이연걸의 히트맨」

주연/이연걸, 양영기, 중지위  
방송/2월 4일 밤 11시 20분

「리셀 뤼폰 4」의 악역으로 할리우드로 진출한 이연걸이, 다시 홍콩 제작진과 함께 만든 작품으로 그의 무술 솜씨를 다시 한번 발휘하고 있다.

전세계 경제권을 쥐고 흔들던 일본 거대 총수 스카모도가 삼엄한 보안과 경호에도 불구하고 피살된다.



죽은 총수의 손자, 겐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상금을 내걸고 할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한다. 돈냄새를 맡은 세계 각처의 일급 살인 전문가들이 속속 모여들고, 이름없는 킬러 소부(이연걸 분)와 그의 대리인 왕삼도 현상금을 노리고 그 죽음의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킬

러들은 왕삼이 제1의 킬러 살수왕(殺手王)이라는 학신을 가지고 그를 추적하게 되는데...

「랜섬」

주연/멜 깁슨, 르네 루소  
방송/2월 5일 밤 11시 10분

아들을 납치당한 후, 몸값 요구에 시달리는 아버지의 고통을 그린 긴박감 넘치는 스릴러로, 56년작 「랜섬」의 리메이크판이다.

멜 깁슨과 르네 루소가 부부로 출연하며, 할리우드 스타 닉 놀테의 아들 브루레이 놀테가 아들로 출연하고 있다. 악역 유괴범으로는 개리 시니즈가 열연한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톰 멀린(멜 깁슨 분)의 아들

THU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베이사이드 알갱들  
11:35 슈퍼맨  
12:00 정겨운 우리기락

FRI

AM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1부)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2부)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00 나팔난 박사 재방송  
11:05 특선 외화 시리즈 베이사이드 알갱들  
11:35 슈퍼맨  
12:00 정겨운 우리기락

SAT

AM

6:00 토요일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첩로  
9:00 토요일 스타클럽  
10:00 생방송 행복찾기(1부)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SUN

AM

6:00 일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7:1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8:00 뉴스 추적  
8:50 일요아침드라마 달콤한 신부  
9:50 LA 아리랑  
10:50 좋은 친구들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구슬종자  
6:15 포켓 몬스터  
6:45 행진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8:00 SBS 8 뉴스  
8:40 나팔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특별 기획 불꽃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00:05 SBS 나이트라인  
00:20 스포츠 와이드

PM

4:00 춤추는 젤라비  
4:30 신기한 동물나라  
5:00 SBS 뉴스퍼레이드  
5:20 밀레니엄 탐험 리얼 코리아  
5:45 창작 만화  
6:15 카드캡터 체리  
6:45 행진  
7:15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게임  
8:00 SBS 8 뉴스  
8:40 나팔난 박사  
8:45 일일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9:1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9:55 기분 좋은 밤  
10:55 영화특급

AM

00:50 SBS 나이트라인  
01:05 스포츠 와이드

PM

12:00 SBS 뉴스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12:55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5 SBS 뉴스  
4:55 순풍 산부인과 스페셜  
5:50 기쁜 우리 토요일  
7:00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주말극장 왕룡의 대지  
9:50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10:50 그것이 알고싶다  
11:50 SBS 골프

AM

00:50 SBS 나이트라인

PM

12:00 SBS 뉴스  
12:10 접속! 무비 월드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4:45 SBS 뉴스  
4:55 생방송 SBS 인기가요  
5:50 호기심 천국  
6:50 로드쇼! 힘나는 일요일  
8:00 SBS 8 뉴스  
8:35 스포츠 와이드  
8:50 주말극장 왕룡의 대지  
9:50 일요드라마 카이스트  
10:50 임백천의 원더풀 투나잇

AM

00:10 일요 심야 극장  
02:00 SBS 나이트라인



「람보 2」  
주연/실베스터 스텔론  
방송/2월 6일 밤 11시 50분

너무나 유명해서 실명이 필요없는 영화. 1편에서 보 여준 어둡고 냉소적인 인물과는 달리 절제된 분노와 인내를 보여준다. 첨단 과학 무기도 마다하고 자신이 인간병기가 되어 극단적인 상황을 헤쳐가는 모습에서 통쾌함과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손이 납치당한다. 유괴범들은 아들의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어오고, 톰은 위험한 거래를 시작한다. 유괴범들이 손을 죽일 것이라고 확신한 톰은 사건의 방향을 180도 틀어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그들의 목에 2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건다.

복역 중인 람보(실베스타 스텔론 분)는 트로트먼(리처드 크레나 분) 대령에 의해 냉전 시대에 잠입, 포로 수용소의 사진만을 촬영해 오는 조건으로 석방되어 위험 지구로 낙하한다. 낙하 도중 사고를 당한 람보는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현지 연락원인 소녀 코 바오



를 만나 악명 높은 해적 드론의 협조로 목적지에 당도한다. 포로 수용소에 잠입, 옛 동료 반크스를 만난 람보는 미군이 빈 포로 수용소를 촬영해, 의회와 포로 가족들에게 전쟁 포로는 없다고 발표할 계획을 알아낸다. 이에 람보의 분노와 슬픔이 폭발한다.

# 표준

FM 103.5MHz  
AM 792KHz



CHANNEL 6 2000년 2월 1일 현재

## MON - SAT

### AM

- 5:00 뉴스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SBS Good morning japanese
- 6:30 봉두완의 SBS 전망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봉두완의 SBS 전망대
- 8:30 노성태의 경제레이더
- 8:40 새 천년 명인에게 듣는다
- 8:55 공황정보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 배기완입니다
- 11:05 순혁재의 세상 속으로

###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정선희 · 김진수의 OH! HAPPY DAY
- 2:00 SBS 뉴스라인
- 2:20 김천석, 전여옥의 밀레니엄 정보 쇼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30 이성미, 지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염용석 · 유지현의 투나잇 쇼
- 9:30 김태욱의 스포츠 쇼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 AM

- 00:00 김진표의 SBS PC 통신-아간비행
- 1:00 손승욱의 Cine Music Club
- 2:00 은지향의 Let the music play 1부
- 3:00 이재춘의 Let the music play 2부
- 4:00 변정원의 Sweet Music

### 월~토요일

-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 일요일

-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 SUN

### AM

- 5:00 뉴스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SBS TEPS English-Let's go TEPS
- 8:05 한비야의 세계 풍물 기행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 배기완입니다
- 11:05 조경철의 라디오 25시

### PM

- 12:05 10시간 생방송  
일요음악여행 1 · 2 · 3 · 4부
- 4:05 일요음악여행 5 · 6 · 7 · 8부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일요음악여행 9 · 10부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 AM

- 00:00 김진표의 SBS PC 통신-아간비행
- 1:00 손승욱의 Cine Music Club
- 2:00 은지향의 Let the music play 1부
- 3:00 이재춘의 Let the music play 2부
- 4:00 변정원의 Sweet Music



### 설날 특집 모음 SBS 표준 FM

#### 『아름다운 세상 나의 요리 나의 인생』 연출/이영일, 2월 4일 오전 9시 5분 방송

대중 스타와 명사들은 설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명절에 얽힌 애뜻한 사연 등을 노래와 편지 사연, 전화연결로 꾸며본다. 탤런트 이정섭이 출연하며, 최화정 류시원 서정희 윤소정 태진아 현철 등과 전화 연결 예정이다.

#### 『아름다운 세상 남과 함께』 연출/이영일, 2월 5일 오전 9시 5분 방송

가수 남진을 초대해 노래 잘하는 법, 노래와 인생,

『남』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 『설을 찾아서』 연출/박성원, 2월 4일, 5일 오전 11시 5분 방송

2월 4일은 '설에는 무엇을 했냐'를, 2월 5일은 '설 민속놀이에는 무엇이 있냐'를 주제로 잊혀져 가는 세 시풍속과 놀이를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

#### 『해피 콘잔치』 연출/정태익, 2월 5일 낮 12시 5분 방송

장안의 말재주꾼들을 출연자로 초대, 설날에 관한 추억담과 함께 맛깔나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눈다.  
김혜림, 정준하, 송은이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 『특집! 새 천년엔 이런 직업이 뜬다』 연출/이정은, 2월 4일, 5일 낮 2시 5분 방송

20세기 직업 변천사와 21세기에는 어떤 직업이 유행할지 전망해 본다. 웹디자인, 운동 처방사, 사이버 가상 캐스터, 게임 시나리오 작가 등 21세기 유망직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 『스승님께 세배를, (가제)』 연출/박성원, 2월 4일, 5일 오후 4시 5분

작가들이 문학수업 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에게 직접 쓴 편지를 낭송하고, 자신의 습작시절 이야기와 스승의 잊을 수 없었던 말씀 등을 함께 들어본다. 2월 4일은 최인호 이문재 하성란 작가, 5일은 심상대 은희경 장석남 작가가 출연할 예정이다.

## MON - SAT

## AM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광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박철의 2시 탈출  
4:00 장호일의 뮤직토포아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10:00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

## AM

00:00 박소현의 러브게임  
1:00 스위트 뮤직박스  
3:00 사운드 오브 뮤직

## SUN

## AM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6:00 광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7:00 이숙영의 파워 FM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 PM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2:00 박철의 2시 탈출  
4:00 장호일의 뮤직토포아  
6:00 허수경의 해피 투게더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10:00 진희, 승현이의 텐! 텐! 클럽

## AM

00:00 째즈 스테이션  
1:00 스위트 뮤직박스  
3:00 사운드 오브 뮤직

# ME E POWER 107.7MHz S B S



## 『2002 월드컵과 시드니 올림픽 전망』

연출/ 장형순, 2월 4일, 5일 밤 9시 30분 방송

올림픽 대표팀의 전력 분석과 앞으로의 보완점, 상대팀 전력 분석, 2002 월드컵에 우리 국가 대표팀이 풀어야 할 과제, 그 동안 월드컵 우승팀의 개관적인 평가 분석 등을 강신우 SBS 축구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본다.

## 『추억의 명작극장』

연출/ 장형순, 2월 4일, 5일 밤 8시 30분

라디오를 통해 추억의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 2월 4일은 TV 드라마, 5일은 영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장순 가요·영화 음악 평론가를 비롯 엄영란, 윤문식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 『출발, 설날 탐험대』

연출/ 김상일, 2월 4일, 5일 저녁 6시 30분 방송

신세대들에게는 생소한 우리 전통의 풍습과 예절, 국악과 판소리를 퀴즈 형식으로 풀어 우리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SBS POWER FM

## 『설날 스페셜 BGM 『고향의 봄, 음악에 실어』』

연출/ 박종주 외, 2월 4일~6일 아침 7시~12시 방송

설날을 맞아 귀성, 귀경길 차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들을 수 있는 BGM을 3일간 마련한다. 아침 7시부터 2시간은 팝과 가요(진행/이숙영)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올드 팝(진행/김태욱)을, 낮 12시

부터 3시까지의 가요(진행/김소원)를, 낮 3시부터 6시까지의 발라드, 포크, 트롯(진행/김정일)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의 팝(진행/허수경)을, 밤 9시부터 12시까지의 최신키요(진행/박진화)를 선사한다.

## SBS 라디오 2000년 교통통신원 출범

SBS 라디오의 청취자들에게 늘 현장의 교통소식을 발빠르게 전할 2000년 교통통신원을 구성, 지난달 21일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개인택시, 버스가 74명으로 구성된 SBS 라디오의 교통통신원들은 올 한해 동안 현장에서의 발빠른 교통 상황 제보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 등 다양한 봉사 활동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 cinEma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금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 생과부 위자로 청구소송

감독/강우석

주연/황신혜, 문성근, 심혜진, 안성기

방송/2월 11일 · 담당PD/김하정

한국영화 최고의 흥행 마술사, 「투캅스」의 강우석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선보이는 코미디 법정 드라마로 초호화 캐스팅도 큰 볼거리를 제공한다.

평소 바쁜 업무에 파묻혀 지냈지만 결국 대기발령을 당한 남편 때문에 분노한 부인 이경자(심혜진 분). 그녀는 그 동안의 부실한 잠자리가 남편의 과중한 업무 탓이라고 주장하며 대기업 일산을 상대로 생과부 위자로 청구소송을 건다. 그런데 믿고 찾아가던 명성기 변호사(안성기 분)는 악덕 변호사인데다 일산기업의 법인 변호사. 이경자는 아쉬운대로 명변호사의 아내인 이기자(황신혜 분)를 변호사로 선임하는데...



## 리버 와일드

원제/THE RIVER WILD

감독/커티스 헨스

주연/메릴 스트립, 케빈 베이컨

방송/2월 18일 · 담당PD/김재영

가족과 휴가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게이일(메릴 스트립 분)은 남편 톰이 회사 일로 바쁘자, 남편을 떼어놓은 채 아이들만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타본 강가로 떠난다. 결혼 전 래프팅 가이드였던 게이일은 여행객 웨이드(케빈 베이컨 분)를 만나 그들과 함께 강을 따라 래프팅하기로 한다. 그러나 남편 톰이 늦게나마 이 팀에 합류하고, 아이들은 소극적인 아빠보다 웨이드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웨이드 일행은 강도였고 평온하던 가족 여행은 일순 인질극으로 변한다. 톰과 게이일은 용감하게 가족을 지켜내는데...



## 킬러 나이트

원제/JUDGMENT NIGHT

감독/스티븐 홀킨스

주연/에밀리오 에스테베스

방송/2월 25일 · 담당PD/송길우

시카고의 밤, 4명의 젊은이(에밀리오 에스테베스, 쿠바 구딩 주니어 등)가 권투 경기를 구경하러 나선다. 그들이 탄 값 비싼 고급 자동차는 교통체증에 걸려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그들은 평소 다니던 길을 버리고 처음 가보는 뒷골목 지름길로 접어든다. 그들이 탄 차가 골목길에 접어들어 오도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들은 그만 뒷골목 후미진 곳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된다. 본의 아니게 목격자가 되어버린 그들을 없애기 위해 살인범 일당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고, 그들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지만 이미 없지러진 물. 가련한 젊은이들의 생존을 위한 사투가 시작되는데...

# 고통 앞에서 숨죽이는 작은 생명의 교훈



**고**통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늘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씩 명치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다. 자기가 겪는 모든 것이 최고의 아픔이라고 생각되고, 누구도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아집을 단칼에 베어 버리는 말... 그 말을 다시 떠올린 건 새로운 천년을 맞은 준비로 한창 떠들썩하던 작년 12월.

「이홍렬소에서 미련한 '참참참 기금' 전달을 위해 마땅한 곳을 찾고 있던 중 포이동에 있는 보육원을 알게 됐다.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촬영에 대해 논의 하던 중 인애의 사연을 듣게 됐다. 6살인 인애는 3살 되던 해에 이 보육원에 맡겨졌다. 아버지가 정신이상이라 갓난 아기였을 때 뜨거운 물에 내던져졌다고 한다. 그 때 입은 팔의 화상이 아직도 인애의 어린 시절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동안 자의 건 타의 건, 세상의 아픔에 무심해 왔던 나로서는 자꾸 화가 났다. 가끔은 나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는 주제에 누굴 돕는다는 것이 어설피게도 느껴졌고, 작은 선행이 세상을 따뜻하게는 할지언정 절대 움직일 수 없다는 허무함이 지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인애, 그리고 웃음 뒤에 쓸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인애의 얼굴이 돌

아오는 내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촬영은 순조롭게 끝났고, 그 후 인애의 수술을 위해서 한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애의 수술은 2시간 만에 끝났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는 인애. "아프면 울어도 돼. 아프면 다른 아이들처럼 울어도 된단다, 인애야." 인애는 끝내 울지 않았다. 보육원 선생님은 그런 인애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무엇이 이 어린 영혼을 숨죽이게 했을까...

인애가 퇴원하는 날, 축복처럼 하얗게 눈이 내렸다. 2주 만에 보는 친구들은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인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인애는 이렇게 친구들 속에서 즐거웠던 것이다.

일상에 지쳐가고 있던 내게, 아침마다 우울해 있던 내게 인애는 삶이 관념이 아님을 가르친다. 관념 속에서 이러쿵 저러쿵 삶을 정의하려 했던 나를 부끄럽게 한다. 원하는 게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현재를 불평하고 있는 나를 고개 숙이게 한다.

많은 어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기를... 그래서 인애가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기를 기대해 본다. <sup>385</sup>